

【 1 】 第25回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제의년월일 : 1994. 3. 15.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25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의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회기 : 94. 3. 21 (1일간)

【 2 】 行政區域改編反對建議案

발의년월일 : 1994. 3. 14.

발 의 자 : 우충국의원외 2인

주 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 의정부시, 양주군 ~ 동두천시 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우리 양주군의회는 반대의견을 붙임과 같이 채택한다.

제안이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 의정부시, 양주군 ~ 동두천시 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우리 양주군의회는 시.군 통합시 주민의 이질감,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의 가속화, 혐오시설등의 유치로 인한 주민 반발, 생활권 변경으로 인한 혼란, 통합으로 인한 애항심 실종 등의 사유로 반대코자 하며 이를 내무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임.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

우리 양주군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이나 또는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타당치 않은 사유로 반대코저 합니다.

다 음

첫째, 양주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곳이며, 지리적 여건, 재원 행정능률, 주민 구성분포 사항등을 고려하고 인구 또한 9만1천명 실제 유동인구 약 10만명으로 볼때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전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둘째, 본군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며 이곳 주민 또한 오랜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누대로 살아 왔으며, 주민의 결집력, 행정의 조직화 자치역량 확보 및 지역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편은 불가하며 동두천, 의정부시가 양주와 분리된 시기는 동두천 13년, 의정부시 31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고 주민분포 상황 또한 타지역(객지) 인으로 구성되어 통합시 주민의 이질감 심화와 지역적 분열이 극히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화합이나 지역발전 기대 미흡

셋째, 개편시 도농 통합형은 시보다 낙후된 군단위 주민이 상대적 빈곤감, 열등감으로 인한 이질감으로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됨

넷째, 지역개발 사업이 도시행정 위주로 추진하게 되므로 현재보다 투자가 줄고 낙후 될 것으로 확실히 되며

다섯째, 시 지역의 모든 협오시설이 토지지가가 저렴한 군 지역으로 이전 될 것이 확실히 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것임.

여섯째, 공공 행정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임.

일곱째, 생활권으로 보아도 현재 군청이 의정부에 소재해 있어 일부 주민이 의정부가 생활권이라고 하나 군청이 본 양주 지역으로 이전시 생활권이 변경 될 것으로 확신하며

여덟째, 우리 양주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 유적을 가졌으며, 고구려 시대의 매초성에서 1466년 조선시대에는 견주군을 오늘의 양주군으로 개칭되어 528년간 이어옴으로 해서 애항심과 지역에 대한 긍지가 높음

아홉째, 본군은 1992년도 기 신청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시 인구 3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형성은 물론 공업단지 유치로 독자적인 개발 여건조성이 확실히 됨.

이상의 반대 이유와 같이 우리군은 평화로와 연계된 경원선 전철 복선공사 및 주내 ~ 가남간 도로확포장등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간접 시설이 현재 확충되고 있고 통일을 대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정구역개편은 반드시 지양되어야겠으며, 우리 양주군은 행정구역개편 및 통합에 전 의원은 물론 10만 군민 대다수가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전원 도시로 발전케 함이 바람직 하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 3 】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3. 1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